

오늘부터 전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최대 45만원 선지급

소득·지역 따라 차등... 1차 4인 기준 60~180만원

9월 12일까지 두 달간 1차 신청... 첫 주는 요일제

#1. 서울 강동구에서 출퇴근을 하는 김정현(38)씨 부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무엇을 살지 고민 중이다. 김씨는 유치원생 딸 한 명과 9월 2일 출산 예정인 건빵이(태명)까지 포함하면 총 4인 가족이다. 외벌이로 일반소득 가구인 김씨는 소비쿠폰 1차 신청기간인 9월 12일 전에 건빵이를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하면 1차로 총 60만원(15만원×4)을 받게 된다.

#2. 경북 의성군에서 자영업자를 하는 박상철(55)씨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고등학교 아들 둘을 홀로 키우고 있다. 박씨는 한부모 가족으로 1인당 소비쿠폰 30만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의성이 인구 소멸지역에 해당해 5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박씨는 1차로 총 105만원(35만원×3)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박씨는 소비쿠폰 절반은 생활비에 보태고 나머지는 아들들에게 새 안경을 맞춰주려 한다.

정부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 받아 당일부터 1차 지급을 개시한다. 1차 소비쿠폰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지급은 4인 기준 수도권 거주 일반 가구라면 60만원을, 비수도권 거주라면 72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라면 80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차상위·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1차로 4인 기준 각각 최대 140만원, 180만원까지 받게 된다.

◆“나는 얼마 받나?”...1차 4인 기준 60~180만원

정부는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총 1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소비쿠폰은 추경 집행의 핵심 민생 대책이다.

1차 지급의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인당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모든 국민이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는 방식이다.

소득이 상위 10%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에 따라,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시·군)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별 기준을 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4인 가구는 1인당 15만원씩 총 6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전남 고흥이나 경북 의성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는 1인당 45만원씩 총 180만원이 지급된다.

이처럼 지급액은 차등화해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 전까지 태어난 아기도 한 사람 몫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데, 그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1차 신청기간인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서 등 증명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9월 13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2차 소비쿠폰 신청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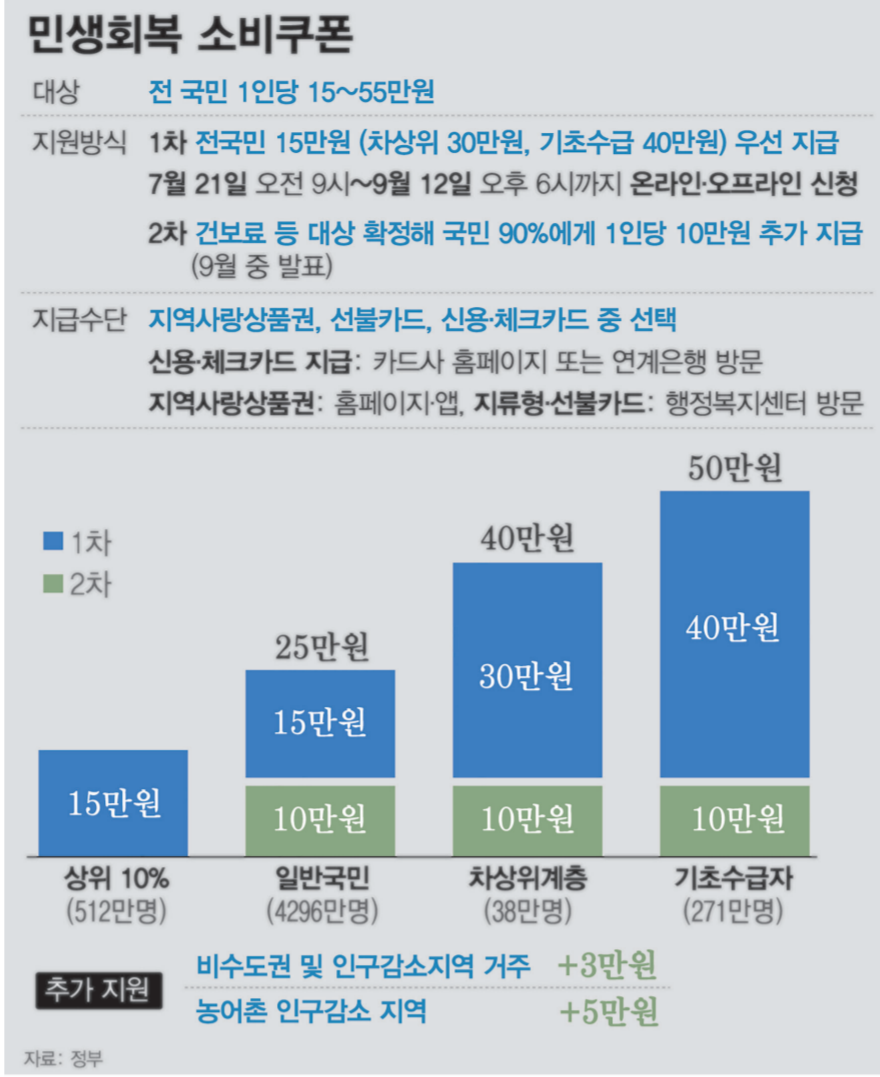
◆“어떻게 신청해요?”...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콜센터와 ARS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자료: 정부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접수·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예정이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신청·지급을 마친 후 9월 22일부터는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전남 농수산물식품 미국 소비자 공략 속도 해의 상설판매장 활용 선제적 판촉... 선적 잇따라

전라남도는 전북과 유사차, 천일염, 홍어 등 전남을 대표하는 식품의 미국 수출 선적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미국 소비자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18일 나주 노안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골든힐이 ‘완도 전복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 물량은 전복 볶음밥, 전복 미역국 등 가공품과 냉동 전복 등 총 5.5톤 규모다. 미국 현지 한인마트인 한남체인인 전남 해의 상설판매장 4개소에서 8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은 여름철 전복 내수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7월부터 미국 등 전복 수출국의 전남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해외 판촉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전복 가격 안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골든힐은 유사차, 녹차, 천일염, 액젓, 건나물, 매실

가공품, 홍어 등 103개 품목 50만 달러 규모의 미국 H마트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 제품은 9월 12일부터 25일 까지 2주간, 미국 전역의 H마트 60여 매장에서 대규모 판촉·홍보 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 직접 만난다.

이런 수출은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미국시장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뤄졌다. 미국 현지 주류 유통망인 H마트 매장에서 판촉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전남도는 2024년 10월 지자체 최초로 H마트 온라인몰에 ‘전남 식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40만 달러에 달하는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글로벌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선적과 판촉행사를 계기로 전남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즌 1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전북 이벤트가 더 많은 기부자에게 특별한 보람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액티부키(놀고팜),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NH농협은행(NH올원뱅크)에서,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다.

이벤트는 전남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지난

시즌 1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전북 이벤트가 더 많은 기부자에게 특별한 보람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액티부키(놀고팜),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NH농협은행(NH올원뱅크)에서,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다.

이벤트는 전남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지난

시즌 1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전북 이벤트가 더 많은 기부자에게 특별한 보람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액티부키(놀고팜),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NH농협은행(NH올원뱅크)에서,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다.

이벤트는 전남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지난

시즌 1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전북 이벤트가 더 많은 기부자에게 특별한 보람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액티부키(놀고팜),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NH농협은행(NH올원뱅크)에서,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최근 광주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입은 피해 상황과 경영 애로 사항을 긴급 조사하고 신속한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공장 및 사업장 침수 피해, 물류·공급망 차질, 생산 중단, 근로자 출퇴근 애로 등 기업 전반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광주상의,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조사... “지원방안 마련”

광주상의는 회원사를 포함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상원 회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광주상공회의소는 현장의 목소

리를 적극 반영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피해 복구 신속 지원 ▲금융·세제 지원 확대 ▲물류 및 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기업 대상 상담과 각종 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기업 지원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기업 대상 상담과 각종 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기업 지원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